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21, Vol. 26, No. 3, 185-200

한국판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K-SIAMA)의 타당화*

송 원 영†

건양대학교

이 연구는 Powell 등(2019)이 개발한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SIAMA)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K-SIAMA로 타당화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215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16개의 문항을 확정하였다. 본조사에서는 321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판과 동일한 최소화/변명과 비난의 두 가지 요인에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강간통념척도, 온라인용 성중독 척도, 갈등책략척도와의 상관을 통해 적절한 수렴-변별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미지기반 성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K-SIAMA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반분신뢰도, 내적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로운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향후 후속 연구 제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척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 관련 연구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디지털 성폭력, 강간통념, 이미지기반 성학대, 잘못된 신념 수용, 척도 타당화 연구

---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하반기 건양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 송원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Tel: 041-730-5414, E-mail: song@konyang.ac.kr

정보통신과 디지털 이미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창작이나 기록 등의 긍정적 활용이 증가한 반면, 기술을 성범죄나 협박 등의 반사회적인 상황에 사용하는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디지털 성범죄로 통칭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법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정보의 유포범죄 일체(권미경, 2019), 보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금전적 목적이나 그 외 악의적 목적에 의해 성적 촬영물을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직접 또는 중간적 인물을 통해 공개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 강요하는 행위(김수아, 장다혜 2019) 등으로 정의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인터넷 성범죄(internet sexual offending), 온라인 성범죄(online sexual crime) 및 이미지 기반 성범죄(Image based sexual abuse, 이하 IBSA)로 지칭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으로는 흔히 젠더기반 폭력과 혐오문화, 대중매체에서의 여성 차별적 문화, 남성 중심적인 인터넷/사이버 공간, 사법절차 및 피해구제장치의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함영욱, 임종인, 2020). 디지털 문화가 점차 발달됨에 따라 성범죄의 도구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은 분명하며, 이들의 심리학적 특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탐색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강간통념(rape myth)은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강간 통념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미로는 이것이 잘못되거나 편향된 믿음이고, 널리 공유되고 있으며 강간을 문화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정당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Lonsway & Fitzgerald, 1994). 강간통념은 특히 성범죄자의 위험성, 재범, 범행부인 등과 관련되어 있다. 강간통념이라는 개념은 성범죄에 대한 태도가 성별, 결혼, 인종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보고된(Feild, 1978) 이후, Burt(1980)가 이 개념을 측정하는 강간통념 척도를 개발하면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것은 성범죄를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는 연구를 비롯하여(Malamuth et al., 1995), 피해자의 강간통념 수용도가 신고율과 부적 상관이 있다거나(Egan & Wilson, 2012), 경찰관의 강간통념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Hine & Murphy, 2018)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촉발되었다. Burt(1980)의 척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석재(1999)에 의해 타당화되어 이후 연구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간통념 척도는 피해자의 성경험,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경솔,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이라는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재소자 집단의 강간통념이 피해자의 성경험,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이 척도를 활용하여 한국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성행동 및 성폭행이 강간통념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이석재, 최상진, 2001; 유재두, 송병호, 2009; 박경, 2008; 최인숙, 김정인, 2015). 그러나 많은 성범죄자는 피해자와 면식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척도는 성범죄자가 처음 만나는 사람임을 가정하고 질문하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점차 미묘하고 은밀해지는 성범죄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였다(Hinck & Thomas, 1999).

강간통념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며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강간통념 관련 척도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일리노이 강간통념 수용척도(Illinois Rape Myth Accentance Scale; IRMA)는 기존 강간통념 척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Payne, Lonsway와 Fitzgerald(1999)가 개발한 척도로, '그녀가 요구했다', '강간이 아니다', '그의 의도가 아니다', '그녀가 원했다', '그녀가 거짓말했다', '강간은 사소한 문제다', '강간은 일탈적 사건이다'의 7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McMahon과 Farmer(2011)는 이를 수정하여 '그녀가 원했다', '그의 의도가 아니다(일반),' '그의 의도가 아니다(중독)', '이건 강간이 아니다', '그녀가 원했다'의 다섯 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22문항의 개정판 척도를 제시하였다. 이 척도에는 '만약 남자가 취하면 의도치않게 강간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여자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강간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등의 미묘한 어감의 문항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주로 대학생에게서 사용하기 좋도록 개선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현대적 통념 수용 척도(Acceptance of Modern Myths about Sexual Aggression Scale: AMMSA) 역시 기존의 강간통념 척도가 정적인 편포를 많이 보일 뿐 아니라, 미묘한 의미의 통념을 측정하기 어려운 것을 개선하기 위해 30문항의 강간통념을 개발하여 독일과 미국에서 동시에 타당화를 진행한 척도이다(Berger, Kley, Bohner, Siebler, 2007). 이 척도에는 '성적인 접촉과 관련해서는 여성은 남성이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 '많은 여성들은 선의의 태도를 성폭력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와 같은 덜 심각해보이는 문항들을 포함시켜서, 정상분포에 가까운 답을 이끌어내면서도 기존의 강간통념 척도와 충분한 상관을 갖는 척도로 제작하였다. 대부분의 강간통념 척도가 여성 피해자를 상정한 것에 반해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통념 수용도에 대한 척도(Male Rape Myth Acceptance Scale; MRMAS)도 개발되었다(Hine, Murphy, & Churchyard, 2021). 이 척도는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하는 경우에 대한 통념을 측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척도와 유사하게 이 척도의 요인은 비난과 축소의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공간을 성범죄의 통로로 사용하는 소위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은 다른 성범죄자에 비해 나이가 젊고, 과반수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무직이 다른 성범죄자의 1/2인 반면, 전문사무직이 2배로 나타나며 피해자의 수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인 경우가 많다(이나현, 조윤오, 2020).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김지영, 2020). 이들은 하나의 집단이라기보다는 그 목적에 따라 소비형, 교류형, 배포형, 착취형으로 구분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된다(송원영, 2021). 소비형은 포르노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고 저장하는 사람들이고, 교류형은 채팅을 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다가 성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사람들이고, 배포형은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생산, 유통하는 사람들이며, 착취형은 적극적인 성 착취 및 협박, 인신매매에 준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미지 기반 성학대(image-based sexual abuse, 이후 IBSA)는 동의받지 않고 성적인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생산하는 것, 동의받지 않고 성적인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것, 성적인 이미지를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말한다(Powell, Henry, Flynn, & Scott, 2019). 호주의 전국적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명(11.1%)이 이미지 기반 성학대 피해를 입고 있다(Powell, Scott, Flynn, & Henry, 2020). 이를 저지르는 이미지 기반 성학대 가해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강간통념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이미지기반 성폭력에서의 잘못된 신념 수용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Powell 등(2019)은 Payne, Lonsway와 Fitzgerald (1999)의 일리노이 강간통념 수용 척도를 모델로 하여 18문항의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sexual image-based abuse myth acceptance; 이후 SIAMA)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7점 리커르트 척도로 이미지 기반 성학대(IBSA) 가해자들의 위해에 대하여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태도를 묻는 12문항과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묻는 6개의 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자들은 SIAMA 척도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통해 SIAMA가 ISBA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증명하였다(Powell 등, 2019). SIAMA는 캐나다에서도 이미지 기반 성학대 가해 경험 중 협박과 배포 경험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뿐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 가해 경험을 예측해주는 매우 의미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Karasavva, 2020).

본 연구는 최근 개발되어 위와 같이 이미지 기반 성학대 통념의 수용 정도를 잘 측정하고 있는 SIAMA 척도를 국내에 타당화하여 한국판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Korean version sexual image-based abuse myth acceptance; 이후 K-SIAMA)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이미지기반 성폭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보고서를 기준을 할 때, 14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들의 음란물 전송 피해율은 42.2%, 불법촬영 피해율 13.4%, 촬영물 유포 피해율은 4.5%로 나타나고 있다(황지태, 김지영, 최수형, 2020). 이는 증가하는 이미지기반 성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SIAMA 척도의 타당화를 통해 이미지기반 성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들에 대한 이해와 개입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진행한 심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았고,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KYU 2021-04-019-002). 전체 문항에 대한 한국판 타당화에 대해 원저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승낙을 얻고, 본 연구자가 문항을 번역하였다. 번역한 문항을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 번역가에게 의뢰하여 영어로 역번역을 한 후, 원저자에게 비교 검증을 의뢰하였다. 의미가 달라진 문항에 대한 원저자의 의견에 따라 번역을 수정하여 한국어로 된 전체 문항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연구는 예비 문항 선별을 위한 예비 조사와 예비 조사를 통해 정리된 본 문항의 타당화 작업을 위한 본 조사로 구성하였으며, 대규모 패널을 소유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조사기관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연령

및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20대부터 60대까지의 성인 남녀 21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구성은 남성이 108명(50.2%), 여성이 107명(49.8%)이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신뢰도 검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후 본 조사에서는 전국에 거주중인 20대부터 60대까지의 성인 남녀 32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같은 답에 반복적으로 응답하는 등의 불성실한 응답자 1명의 결과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남성이 157명(48.9%), 여성이 164명(51.1%)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강간통념수용도 척도, 온라인용 성중독 척도, 개정판 갈등책략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 참여자 중 108명을 대상으로 4주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 (SIAMA)

Powell 등(2019)이 IBSA(Image-based sexual abuse)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SIAMA)를 절차에 따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SIAMA 척도는 총 18개의 Likert 7점 척도 문항(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Powel 등(2019)의 연구에서 SIAMA 척도는 최소화/변명, 비난의 2가지 구성요인으로 나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의 최소화/변명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Powell 등(2019)의 연구에서 나타난 최소화/변명의 내적 합치도는 .94, 비난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87, 최소화/변명 .94, 비난 .77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강간통념수용 척도

Burt(1980)가 개발하고, 이석재(1999)가 수정·번안하여 새로운 문항을 일부 추가한 강간통념 수용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의 Likert 9점 척도(1 = '아주 반대', 9 = '아주 찬성')로,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 8문항, 피해자의 성경험 4문항,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5문항,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6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용 성중독 척도

송원영, 박선경, 신나라(2016)가 다양한 연령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온라인용 성중독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30개의 Likert 5점 척도문항으로, 성적 상상 및 모방 충동 7문항, 일상생활 장애 8문항, 내성 8문항, 일탈적 성행동 7문항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원영 등(2016)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8로 나타났다.

개정판 갈등책략 척도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데이트 폭력 가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개정판 갈등책략 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2: CTS-2)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에 맞게 수정 · 보완한 김정란(1999)의 개정판 갈등책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는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성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가해'의 입장에서 각각 측

정하기 위해 심리적 폭력 11문항, 신체적 폭력 7문항, 성적 폭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없다'에서 '매우 자주 있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김정란(1999)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6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기반 성범죄 가해 경험

이미지 기반 성범죄 가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Powell 등(2019)이 사용한 이미지 기반 성범죄 가해 경험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7개 문항 중 마지막 '없다'를 제외한 6가지의 이미지 기반 성범죄 가해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다. 6개의 문항 내용은 1) 성적 이미지를 몰래 찍음, 2) 성적 이미지를 허락받지 않고 공유함, 3) 성적 이미지 공유를 협박하며 추가 이미지 요구, 4) 성적 이미지 공유를 협박하며 돈/물건 요구, 5) 성적 이미지 공유를 협박하며 성적/물리적 폭행, 6)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이미지 공유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예/아니오로 대답하게 되어 있고,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성하여 점수를 비교하였다.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 추출 방법으로 최대우도 방식을, 요인 회전방법으로는 사교회전방식인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모형을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넷째,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강간통념 수용도 척도, 온라인 성중독 척도, 개정판 갈등책략 척도를 사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반분계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Powell 등(2019)이 개발한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 18문항이 국내 성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4개였으나 스크리도표를 검토한 결과 1요인과 2요인의 고유치는 6.1, 2.6인 것에 반해 3요인과 4요인은 1.25, 1.07로 2개 요인 이후 현저한 변화를 보여 2개의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기존 척도와 동일하게 요인의 개수를 2개로 고정하고 최대우도법, 직접 오블리민 회전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KMO값은 .88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2067.56($p < .001$)로 나타났다. 패턴행렬과 구조행렬을 살펴본 결과 두 개 이상의 요인에 .30 이하로 부하된 14, 15번을 제거하였다. 그리하여 첫 번째 요인인 최소화에는 1, 2,…, 12번까지의 12개 문항이 원 척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두 번째 요인인 비

표 1. K-SIAMA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신뢰도
	요인1	요인2	
2. 여자들이 연애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어도 파트너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공유해야 한다.	.907		.95
5. 대부분의 여성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여자의 누드 사진을 남자가 친구들과 공유하면 여자는 그 남자와 사이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906		
8. 남자가 자기 파트너의 누드나 섹시한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881		
6. 여자는 파트너가 그녀의 누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 해서 화를 내서는 안된다.	.878		
4. 남자라면 파트너가 그의 누드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다 해도 화를 내면 안된다.	.873		
1. 여자들은 파트너나 이전 파트너가 그녀의 누드 사진을 친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칭찬 받는 느낌이 들 것이다.	.826		
7. 만약 여자가 친구에게 자기 파트너의 누드나 섹시한 사진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그녀가 그 남자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823		
9. 어떤 여자가 방금 만난 남자에게 누드나 성적인 사진을 보낼 의향이 있다면, 그가 친구들에게 그 사진을 보내는 것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795		
12. 남자들은 누드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할 의도가 없어도, 워낙 성적으로 흥분을 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674		
3. 만약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서 친구들에게 파트너의 누드나 섹시한 사진을 공유했다면 그리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아니다.	.661		
11. 남자들은 성적인 파트너의 누드 사진을 공유하는 것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이 높아질 수 있다.	.654		
10. 여자들은 그들의 누드나 성적인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622		
18. 남자가 누드나 성적인 이미지를 자기 파트너에게 보낸다면, 그것이 사적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780	.78
16. 연예인이나 미디어에 잘 알려져서 섹시한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들은 그런 사진들이 사적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679	
17.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는다 해도, 처음으로 누드 셀카를 찍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다.		.651	
13.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누드나 성적인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다면 둘 다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568	
고유값	8.125	2.349	
설명분산	50.782	14.682	
누적분산	50.782	65.465	

주. 요인1 = 최소화/변명, 요인2 = 비난.

난에는 13, 16, 17, 18번의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축약된 SIAMA의 16개 문항은 2개의 요인에 의해 전체 변량의 65.5%를 설명하였다(표 1).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척도와 마찬가지로 요인 1은 최소화/변명, 요인 2는 비난이라고 명명하였고,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95와 .78로 나타났다.

본조사에 대한 요인분석

본조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추출된 하위요인들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성인 남녀 321명을 대상으로 수정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하위요인 간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하위 요인 간 낮은 수준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 = .36, p < .001), 각 하위 요인은 전체 변인과 높은 수준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선택된 최종 16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요인구조의 일반화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본 척도의 요인구조의 모형 적합도는 $X^2(89, 321)=449.188$, $p<.001$, TLI=.939, CFI=.949, $RMSEA$=.079로 나타났다(표 3). 홍세희(2000)에 따르면 TLI와 CFI의 경우 값이 .90이상일 때 좋은 수치로 판단하며, RMSEA의 경우 .08이하의 값을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제시된 기준에 충족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의 구조모형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321)

변인	최소화/변명	비난	전체
최소화/변명	1		
비난	.36 ***	1	
전체	.88 ***	.76 ***	1
평균	1.47	3.81	2.10
표준편차	.73	1.82	.76
왜도	2.10	-.03	.73
첨도	4.25	-1.07	.37

*** p< .001

표 3. K-SIAMA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N=321)

구분	χ^2	df	TLI	CFI	$RMSEA$
K-SIAMA	449.188	29	.939	.949	.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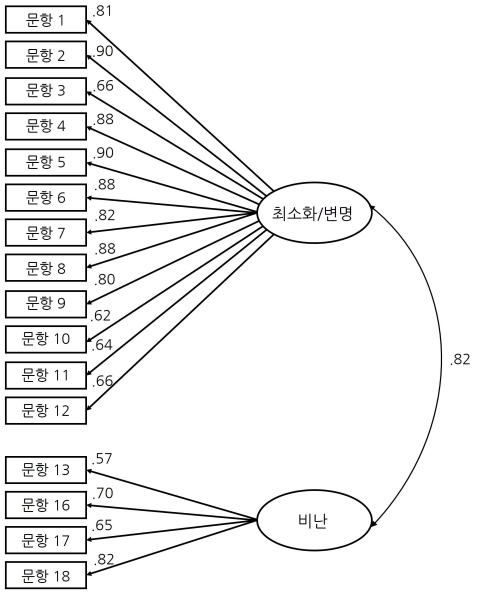


그림 1. K-SIAMA 최종 모형

타당도 분석

수렴-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결과, 표 4에 소개된 바와 같이 강간통념 수용도 척도(r = .58, p < .001)와 중등도 상관을 보였으며, 온라인용 성중독 척도(r = .37, p < .001), 갈등책략 척도(r = .29, p < .001)와는 낮은 상관을 보여 적절한 수렴 및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5). 하나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은 321명 중 15명으로 전체의 4.7%였으며, K-SIAMA의 총점(t = -4.37, p

표 4. K-SIAMA와 온라인용 성중독, 강간통념수용도, 갈등책략과의 상관관계 (N=321)

척도		K-SIAMA		
		최소화/변명	비난	전체
강간 통념 수용도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	.64***	.17**	.56***
	피해자의 성경험	.63***	.20***	.57***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44***	.29***	.50***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43***	.28***	.47***
	전체	.60***	.25***	.58***
온라인용 성중독	성적 상상 및 모방 충동	.42***	.02	.31***
	일상생활장애	.35***	-.06	.35***
	내성	.31***	-.02	.31***
	일탈적 성행동	.37***	.00	.37***
	전체	.55***	-.02	.37***
갈등책략	심리적 폭력	.28***	.01	.21***
	신체적 폭력	.45***	-.01	.31***
	성적 폭력	.43***	-.00	.30***
	전체	.40***	.00	.29***

**p < .01, ***p < .001

표 5. 이미지 기반 성범죄 경험에 따른 K-SIAMA 점수의 차이 (*N*=321)

K-SIAMA		전체		최소화/변명		비난	
이미지 기반 성범죄 경험		*M(SD)*	*t*	*M(SD)*	*t*	*M(SD)*	*t*
전체 (하나 이상 경험)	예 (n=15)	56.33(21.28)	-4.37**	38.40(17.39)	-4.78***	17.93(5.69)	-1.68
	아니오(n=306)	32.12(12.77)		16.75(9.59)		15.36(7.24)	
성적 이미지를 몰래 찍음	예 (n=7)	43.00(19.40)	-1.85	27.57(15.20)	-1.74*	15.43(6.95)	.02
	아니오(n=314)	33.03(14.02)		17.54(10.85)		15.49(7.21)	
성적 이미지를 허락받지 않고 공유함	예 (n=4)	52.50(17.25)	-2.76**	35.59(14.48)	-3.29**	17.00(5.42)	-.42
	아니오(n=317)	33.00(14.01)		17.53(10.83		15.47(7.21)	
공유 협박하며 추가 이미지 요구	예 (n=5)	67.80(24.31)	-5.76***	49.00(17.46)	-6.82***	18.80(6.87)	-1.04
	아니오(n=316)	32.70(13.34)		17.27(10.20)		15.43(7.19)	
공유 협박하며 돈/물건 요구	예 (n=8)	55.67(19.66)	-.228**	40.00(13.86)	-3.57***	15.67(5.86)	-,04
	아니오(n=318)	33.03(14.00)		1.55(10.81)		15.48(7.21)	
공유 협박하며 성적/물리적 폭행	예 (n=2)	48.00(21.21)	-1.48	35.00(15.56)	-2.23*	13.00(5.66)	.49
	아니오(n=319)	33.15(14.14)		17.65(10.94)		15.50(7.20)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이미지 공유	예 (n=1)	33.00 (-)	-.02	24.00 (-)	-.56	9.00 (-)	.90
	아니오(n=320)	33.25(14.21)		17.74(11.04)		15.50(7.19)	

*p < .05, **p < .01, ***p < .001

< .01)과 최소화/변명(t = -4.78,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개별 문항에서의 차이는 전체 점수의 경우, 성적 이미지를 허락받지 않고 공유함, 공유를 협박하며 추가 이미지 요구, 공유 협박하며 돈/물건 요구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최소화/변명은 대부분의 가해 경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이미지 공유' 변인에서만 사례수가 한 명이어서 검증이 불가능하였다. 반면, 비난 요인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 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뢰도 분석

K-SIAMA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반분계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Cronbach α = .80, Guttman의 반분계수는 .84로 적절히

표 6. K-SIAMA 신뢰도 분석

	내적합치도 Cronbach α (*N*=321)	Guttman 반분계수 (*N*=321)	검사-재검사 신뢰도 (*N*=108)
최소화/변명	.90	.91	.83
비난	.77	.72	.46
전체	.80	.84	.72

높았고, 참여자 일부(n=108)에 대해 약 4주 간격으로 재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72로 적절하게 나타났다(표 6).

논 의

이 연구는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SIAMA)를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한국판 척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IAMA에 대한 번역과 역번역을 통해 문항을 확보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본조사를 통해 16개 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수렴-변별타당도, 준거타당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반분신뢰도, 내적 합치도 등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K-SIAMA)는 원래의 척도와 동일한 두 개의 요인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첫 번째 요인인 최소화와 변명은 원판과 동일한 12개의 문항을 유지하였지만, 두 번째 요인인 비난은 요인분석과 문항분석 과정에서 14번과 15번이 제외되어 6문항이 아닌 4문항으로 축소되었다. 제거된 두 개의 문항은 14번(여자가 파트너에게 누드나 성적인 이미지를 보낸다면, 여자는 그 이미지가 온라인에 퍼진다 해서 놀라서는 안된다)과 15번(남자가 방금 만난 누군가의 누드나 성적인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면, 남자는 그 이미지가 온라인에 퍼진다 해서 놀라서는 안된다)인데, 이 두 문항은 문장의 구조가 동일하고, 나머지 13, 16, 17, 18번 문항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이 최소화/변명 요인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이유일 수 있겠다. 이 두 문항을 제외하는 경우, 두 개의 요인은 누적분산이 65.5%까지 나타나는 등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고,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좋은 적합도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지 기반 성폭력에서의 잘못된 신념은 원판과 동일하게 최소화/변명과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두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K-SIAMA는 적절한 수렴-변별 타당도를 갖춘 도구로 확인되었다. 원저자들이 개발 시 참고했다고 밝힌 Burt(1980)의 강간통념 수용도와의 상관에서 전체 척도들 간에는 .58의 중등도 이상의 상관을 보여주었고, 각각의 세부 척도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K-SIAMA의 최소화/변명은 강간통념의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과 .64의, 피해자의 성경험과는 .63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여서 이미지 기반 성폭력에 대해 높은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은 강간통념 수용도도 높음을 보여주었다. 비난의 경우 .25 전후로 이보다는 낮은 상관을 보였으나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맥락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K-SIAMA는 온라인용 성중독 척도와도 중간 또는 약간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최소화/변명은 성중독 척도의 전체 점수와 .55의 상관을 보였고, 다른 척도들과는 .35 내외의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이미지 기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다수가 성중독 경향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성중독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도 성중독이 심해지면 일상적인 방법으로 중독적인 성적 쾌락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범죄를 통한 성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한다(Carnes, 2001). 성적 상상 및 모방충동이 소척도들 중 최소화/변명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신나라, 송원영, 2016). 이 척도와 개념적인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갈등책략 척도의 경우 전체 척도의 상관이 .29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변별타당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소화/변명은 .40을 전후로 중등도의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에서 각기 .45, .43의 상관을 보여 이미지기반 성폭력에 대한 수용도와 다양한 폭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심리적 폭력과는 .21의 낮은 상관을 보여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변별됨을 보여주었다. 다만, 비난 요인은 성중독이나 갈등책략과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비난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스스로 셀카를 찍는다거나 섹시한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어서, 디지털적인 요소에 좀 더 특화된 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 경험에 대한 예측에서도 최소화/변명 요인은 이를 유의하게 예측했지만 비난 요인은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서(Karasavva, 2020), 가해자의 행동과 관련하여서는 최소화/변명 요인이 더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척도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피해자에의 영향이나 인식과 관련한 연구는 적은데, 강간통념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의 강간통념이 신고한 피해자의 강간통념보다 높았다는 연구가 있는 것을 참고하면(Egan, & Willson, 2011), 이 척도에서의 비난 요인이 피해자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겠다. 향후 연구를 통해 그 유용성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이미지 기반 성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보고한 사람들의 K-SIAMA 점수는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소화/변명은 성적 이미지를 몰래 찍은 경험, 성적 이미지를 허락받지 않고 공유한 경험, 공유를 협박하며 추가 이미지를 요구하거나 돈/물건을 요구하거나 성적/물리적 폭행을 요구하는 경우 모두에서 의미있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K-SIAMA가 실제 이미지 기반 성범죄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준거타당도를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비난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는 한편으로 비난 요인의 개념적인 측면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321명의 참여자 중 각각의 이미지 기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답한 사람들이 매우 소수(1~8명)에 불과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문항은 평균은 수치적으로 이미지 기반 성범죄 경험자에게서 더 높게 나오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Powell 등(2019)의 연구에서는 4,0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SIAMA의 비난점수가 이미지 기반 성범죄 가해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참고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적 분석이 보다 자유로운 수준이 되도록 연구대상자의 수를 증가시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보다 더 대규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향후에는 자기보고가 아니라 실제 이미지 기반 성범죄를 저질러 객관적으로 문제가 확인된 사람들의 자료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논의할 것은 비난 요인이 피해자와 관련될 가능성이다. 강간통

념수용도의 경우, 수용도가 높은 피해자는 자신을 탓하거나 경찰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Egan, & Wilson, 2012), 수용도가 높은 경찰이나 판사는 피해자를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Hine & Murphy,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와 관련하여 최소화/변명 소척도의 유용성이 더 많이 발견되었으나, 향후 피해자나 피해자를 담당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비난 요인이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겠다. 따라서 K-SIAMA를 피해자 관련 연구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K-SIAMA는 적절한 수준의 내적 일치도, 반분신뢰도를 보였다. 내적 일치도는 .80～.90 수준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고, Guttman 반분 계수 역시 .72～.91로 적절하였다. 개별 문항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가 적절하고 검사의 내용에 일관성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다만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최소화/변명은 .83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에 반해 비난은 .46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원저자가 검사-재검사 수치를 보고하지 않았고, 관련된 다른 선행연구가 없어서 이미지 기반 성폭력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사회의 이슈나 생각의 변화에 따라 쉽게 바뀌는 불안정한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를 통해 비난 요인의 시간적 안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K-SIAMA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비록 다른 강간통념 척도들에서도 지적되고 개선되어가고 있는 문제이지만 자기보고식 검사이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검자들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근본적인 한계이므로 사회적 바람직성 검사를 병행하거나 검사시 개인적인 공간과 비밀보장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난 소척도에서 두 문항을 삭제했음에도 수렴, 변별타당도나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최소화/변명 요인에 대해 다소 불안정한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미지기반 성범죄의 경험에 대해서도 자기보고식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반으로 분석을 시행하여, 자신의 범죄를 축소보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반복연구 및 실제 이미지 기반 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유용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K-SIAMA는 이미지기반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인지적 특성을 알려주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강간통념 수용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이미 성범죄자에 대한 개입, 재범 예측,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도구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K-SIAMA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자에 대한 개입과 피해자의 권익 보호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개선에도 확장되어 사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권미경 (2019).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10(3), 39-76

김수아, 장다혜 (2019). 온라인 피해 경험을 통

해 본 성적 대상화와 온라인 성폭력 문제. 미디어, 젠더 & 문화 34(1), 89-130.

함영욱, 임종인 (2020).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실태 분석 및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9(2), 197-226.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 경 (2008).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간의 관계: 공감 및 강간통념의 중재 및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19-536.

송원영 (2021). 성범죄자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송원영, 박선경, 신나라(2016). 온라인용 성중독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 225-242.

신나라, 송원영 (2016). 성적 공상의 양면성에 대한 통합적 이해 - 장애, 범죄, 치료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1), 339-351.

유재두, 송병호 (2009). 성범죄자와 일반인의 강간통념 비교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6, 135-165.

이나현, 조윤오 (2020).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신상정보 등록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2), 135-156.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이석재, 이상진 (2001). 강간통념 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최인숙, 김정인 (2015).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 폭력수용 및 성역할 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277-300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황지태, 김지영, 최수형 (2020). 불법촬영, 사이버 성폭력 피해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Berger, H., Kley, H., Bohner, G., & Siebler, F. (2007). The Acceptance of Modern Myths About Sexual Aggression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in German and English. *Aggressive Behavior, 33*, 422-440.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217-230.

Carnes, P. (2001). *Out of the Shadows: Understanding Sexual Addiction. 3rd. ed.* Center City, MN: Hazelden.

Egan, R., & Wilson, J. C. (2012). Rape Victims' Attitudes to Rape Myth Acceptance.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9*(3), 345-357.

Egan, R., & Wilson, J. C. (2012). Rape victims' attitudes to rape myth acceptance.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9*(3), 345-357

Feild, H. S. (1978). Attitudes toward rap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ice, rapist, crisis counselors, and citizens. *Journal of Personaliy and Social Psychology, 36*, 156-179.

Hinck, S., & Thomas, R. W. (1999). Rape myth acceptance in college students: How far have we come? *Sex Roles, 40,* 815-832.

Hine, B., & Murphy, A. (2018). The influence of 'high' vs. 'low' rape myth acceptance on police officers' judgements of victim and

perpetrator responsibility, and rape authenticit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60,* 100-107.

Hine, Murphy, & Churchyard, (in pr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ale Rape Myth Acceptance Scale (MRMAS). *Heliyon.* https://doi.org/10.1016/j.heliyon.2021.e07421.

Karasavva, V. (2020). *iPredator: Image-based Sexual Abuse Risk Factors and Motivators.* unpublished thesis, Carleton University.

Lonsway, K. A.,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133-164.

Malamuth, N. M., Linz, D., Heavey, C. L., Barnes, G., & Acker, M. (1995). Using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to predict men's conflict with women: A 10-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2), 353-369.

McMahon, S., & Farmer, G. L. (2011). An updated measure for assessing subtle rape myths. *Social Work Research, 35*(2), 71-81.

Payne, D. L.,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9). Rape myth acceptance: Exploration of its structure and its measurement using the 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 27-68.

Powell, A., Henry, N., Flynn, A., Scott, A. 2019). Image-based sexual abuse: The extent, nature, and predictors of perpetr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Australian resi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2,* 393-402.

Powell, A., Scott, A., Flynn, A., & Henry, N. (2020). *Image-Based Sexual Abuse: An International Study of Victims and Perpetrators.* Technical Report of RMIT University. DOI: 10.13140/RG.2.2.35166.59209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1차원고접수 : 2021. 08. 09.
심사통과접수 : 2021. 09. 06.
최종원고접수 : 2021. 09. 30.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21, Vol. 26, No. 3, 185-200

Validation of Korean-version Sexual Image-based Abuse Myth Acceptance Scale (K-SIAMA)

Won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alidate the K-SIAMA by translating the Sexual Image-Based Abuse Myth Acceptance (SIAMA) scale developed by Powell et al. (2019) into Korean and verifying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In study 1, data from 215 people were collected,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and 16 items were confirmed. In study 2,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on 321 people showed a good fitness in the two factors as the original version; minimization/excuse and blame. Appropriate convergent-discriminant validity was confirmed through correlation with the Rape Myth Scale, Online-version Sex Addiction Scale, and Conflict Tactic Scale-2. Also,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committed image-based sexual violenc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K-SIAMA.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half-reliability,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K-SIAMA was confirmed to be a reliable measure. This scale can be widely used in future research on online sexual violence, including digital sex crimes in Korea.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net sexual offending, image based sexual abuse, false belief acceptance, scale validation study